

LG배 여자야구대회 폐막... '나인빅스' 우승

39개 팀 참가... 국내 가장 큰 규모

'2018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LG전자는 지난달 20일 개막한 여자야구대회가 11일 폐막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여자야구대회는 LG전자가 2012년부터 한국 여자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열고 있는 대회다. 올해로 6회째로, 국내 여자야구대회 중에는 가장 큰 규모다.

올해 대회에는 39개 팀에서 선수 830명이 참가했다. 결승전은 챔피언스에서 '나인빅스'가 '블랙펄스'를 11대5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퓨처리그에서는 '헤머스톰'이 '뿔다발'을 14대10으로 눌렀다.

우승팀은 도차기로 만든 트로피와 상금을 받았다. MVP와 포지션별 우수선수에는 'LG 프라엘'과 'LG 퓨리케어 공기정정기' 등이 주어졌다.



2018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가 성황리에 폐막했다.

/LG전자

손예림 나인빅스 감독은 "여자야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준 LG전자와 한국여자야구연맹에 감사한다"며 "여자 야구선수들이 더 많은 경기에서 땀 흘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충학 LG전자 지원부부장 부사장은 "대회기간 동안 선수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에 감동받았다"며 "한국 여자야구가 더 높이고 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사립유치원의 집단 움직임



기지수첩

한용수
(정책사회부)

사립유치원들의 사실상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달 30일 유치원장과 설립자 등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로 개최한 대토론회 직후, 사립유치원 원장 대다수가 폐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도 각 유치원 원장들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집단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끌어온 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전국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를 했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 특히 내년 원아 모집을 위한 일정을 미루거나 학부모들에게 알려 주지 않는 유치원들은 이보다 더 많다. 휴업이나 폐원을 신청했거나, 원아 모집 일정을 보류하거나 정하지 않은 유치원들의 행태를 보면 집단 움직임과 다름없다.

올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발표가 없었더라면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이미 내년 원아 설명회나 모집 일정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했어

야 했다. 정부 당국이 임의 휴·폐업 유치원에 대해 경찰 고발 등의 강경 조치를 공언하자 이를 피해 가려는 꼼수에 불과한 이유다.

박용진 의원 등 129명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들의 태도는 학부모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일부 유치원장들은 교사들에게 정부 입법에 고시시스템에 반대글을 써주며 댓금을 달라고 한 제보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재산권에만 집착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명목백을 사거나 보험료와 수리비까지 냈던 비리유치원에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에 반기를 든 것은 선량한 사립유치원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다.

정부의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등록한 걸 보면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비리오명을 벗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12일 교육부는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립유치원 휴·폐업뿐 아니라 모집 일정 등의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모집 일정을 보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임의 휴·폐업에 준하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

/hys@metroseoul.co.kr

쌍용자동차 임직원·中企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쌍용자동차가 임직원과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자람어린이집'을 운영한다.

12일 쌍용차에 따르면 자람어린이집은 대지면적 1499㎡(약 455평),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 1~5세 유아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내·외부 인테리어에 모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보육실 외에도 도담돌(도서관), 놀이터, 산책로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보육 공간들로 구성했다. 전국 100여 곳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아 양질의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에 참여한 쌍용송탄정비센터, 아성화학, 테스나 등 칠곡·송탄산업단지 내 20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지를 무상 제공한 것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가 지난 9일 개원한 '자람어린이집'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쌍용자동차

은 물론 근로복지공단 건립지원금을 제외한 건설비 전액을 부담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11월 13일 (음 10월 6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60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72년생 많은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쳐라. 84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 소** 49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1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73년생 비가 든 구름을 걸어서 아찌 알겠는가? 85년생 확실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한다.
- 호랑이** 50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꾸준하 노력. 62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74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 갚아 오다. 86년생 얼룩진 옷은 벗어서 빨아야 얼룩을 없앨 수 있다.
- 토끼** 51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 하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63년생 비상금을 이용해서 난국을 타개. 75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해야 한다. 8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원숭이** 52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64년생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하나 의외의 복병을 조심하자. 76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88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부단한 노력이 필요.
- 뱀** 53년생 거울은 결코 혼자서는 웃지 않는다. 65년생 힘 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면 큰 보답이 온다. 77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8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 말** 54년생 상대를 배려해야 나도 존중받는다. 66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오늘은 자중해야 한다. 78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꼭 챙겨라. 9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
- 양** 55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67년생 한발 앞서려다 두 걸음 뒤처지게 되니 주의하라. 79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9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 원숭이** 56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68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치는 하루. 80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을 수 있다. 92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있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 닭** 57년생 금전 문제 아니면 만남에 속상할 일이 생긴다. 69년생 가까운 사이일 수록 예의를 갖춰야 한다. 81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주의. 93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면 좋은 일이 있다.
- 개** 58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70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나 실속은 없다. 82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94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발은 더러워지기 마련.
- 돼지** 59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71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83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면 된다. 95년생 기회가 주어지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9	2		
	4					1	
3			2	4			8
8	3				5		1
4			1	7	3		6
	9				4		2
1		4	7	6			5
	6					4	
	2	8	9	1	6		

		5		8		2	
	3			9			4
1			4	5	6		7
		2				1	
9	7	1		3		4	2
		4				5	
2			5	4	3		8
	5			7			6
	8		2			3	

스도쿠 정답								
4	9	1	6	8	2	5	7	3
6	7	5	2	3	8	9	4	1
5	2	8	9	7	1	6	5	3
2	7	5	8	9	6	1	4	3
9	8	4	1	6	5	7	3	2
1	6	5	2	7	4	8	9	3
8	5	2	7	1	9	4	6	3
4	1	6	8	9	7	2	5	3
7	9	2	6	4	5	1	8	3



김상회의四季

신성(神性)

믿음은 합리적인 이성이 함께 할 때 빛을 받는다. 바른 견해와 사유 없이 종교에 맹신하게 되면 웃지 못할 미신적인 행태가 건드리지 못할 종교적 전통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종교의 순기능은 삶의 과정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저력을 줄 뿐만 아니라 보다 도덕적인 삶으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다루는 정신적 수행도 수반하기에 종종 기적으로 보이는 체험을 하거나 신통스러운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경험이나 기대는 종교의 신비성 또는 신통력을 빙자한 사이비종교의 발생이나 횡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혼란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여서 종교를 빙자한 사탄 신앙단체는 흑세무민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네팔의 살아있는 여신이라는 '쿠마리' 제도에 대해 언젠가 신문의 해외포퓰러에서 화려한 장식과 눈가의 검은 화장 붉은 입술로 화장을 한 어린 여자아이가 처연한 눈빛으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쿠마리는 힌두교의 고대 여신 '탈레주'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 소녀를 쿠마리로 간택하여 사원에 거주케 하여 숭배하기 시작한 것은 1918년부터라고 한다. 4살이나 5살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여신으로의 임무를 해내야 한다. 그러나 나라의 수호신이라고 온갖 추앙을 받다가 초경이 시작되면 신성성이 사라졌다 하여 오히려 갖은 멸시를 받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생각이란 말인가? 쿠마리가 되면 신성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가마를 타고 다니며 온갖 숭배를 받다가 말다. 네팔인 들은 쿠마리여신이 복과 행운을 가져다주며 따라서 신통력을 가진 존재인 쿠마리가 흠뻑 쳐다보기만 해도 행운이 온다고 믿기에 쿠마리 사원 앞에 모여 자신들에게 시신을 보내주기를 기원한다고 한다. 최근에 네팔의 쿠마리제도가 어린 소녀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네팔 대법원은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에게도 어린이로서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여실지견(如實知見)할 때 더욱 신성(神性)은 빛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7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82호